

4월 태양광 첫 출력 제어...호남 사업자 "전기 팔 곳 없다"

산업부 전력 수급 특별대책에 매출 감소 등 피해 우려 보상 얘기도 없어 불만 커져...28일 DJ센터서 설명회

다음달부터 호남지역 태양광 설비가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에 들어간다. 봄철 전력수요는 감소하고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력제어를 할 경우 지역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도 우려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매일 기상 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경남지역 '지속발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출력제어 조치는 전력 수요 대비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연중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시기가 봄철인 데다, 봄은 여름에 비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이 더 많은 시기다.

무엇보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4월29-30일)과 어린이날(5월5-7일) 연휴기간 전력수요가 감소,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사업용 태양광이 많은 지역으로, 연계량 한계 탓에 초과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모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생산량 대비 전기 소비량이 적은 호남지역 특성상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발전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호남지역은 21GW 안팎의 전국 사업용 태양광 가운데 40%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출력제어 용량(1.05GW)은 원전 1기의 출력과 맞먹는 규모다. 출력제어는 공공기관 보유 설비부터 우선 차단한 뒤 용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보유 설비로 넘어간다.

산업부는 날씨가 맑은 주말·연휴에도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고, 불가피한 경우 원전의 제한적 출력조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앞으로 매년 출력제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

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배전망과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 전력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넘치는 전력은 수도권 등지로 운전자도 보낼 수 없고 다른 발전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전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야 문제가 되지만, 전기가 과잉 공급될 경우에도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블랙아웃(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했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 봄철에도 처음 수립·시행한 이유기도 하다.

출력제어 조치에 들어가면 호남지역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나주에 100kW 생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유모(55)씨는 "태양광 투자를 위해 토지와 시설 등에 총 2억5000만원이 들었다. 1억 5000만원은 다 빛이다"며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선 상황에서 출력제어 조치로 생산한 전기를 팔지 못하면 손실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개인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산업부는 수급대책 기간에 앞서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31일에는 서울에서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로 했으나, 출력제어 조치에 따른 별도의 보상 얘기는 없어 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 대유행 후 성과급 양극화...금융·보험 '최고'

경총 2022년 분석 보고서

코로나 대유행 전후 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은 증가했으나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성과급 등 특별급이 격차가 커 인상액과 인상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은 4650만원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직전 해인 2019년(4200만원) 대비 10.7% 늘었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이 인상률이 이 기간 13.6%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등을 합한 정액급 인상률(10.3%)보다 높았다.

특별급은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가 2021-2022년 26.1% 오르는

상여금 등 특별급이 인상률 31.2%...교육서비스업 19.0% ↓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 4650만원...2019년 대비 10.7% 늘어

등 시기별 변동성이 큰 반면 정액급은 전년 대비 2020년 2.2%, 2021년 3.4%, 2022년 4.3% 오른 수준이었다.

사업체 규모별 연평균 임금 총액은 300인 미만인 2019년 3795만원에서 2022년 4187만원으로 392만원(10.3%), 300인 이상은 같은 기간 6188만원에서 6806만원으로 618만원(10.0%) 각각 인상됐다.

이 기간 정액급 인상폭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10.5%로 300인 이상(8.1%)보다 2.4%포인트 높았으나 특별급 인상률은 300인 이상이 15.5%로 300인 미만(8.6%)을 6.9%포인트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7419만원에서 8713만원으로 17.5%(1294만원) 올라 인상률과 인상액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최저치를 보인 교육서비스업은 임금 총액이 4432만원에서 4272만원으로 3.6%(160만원) 감소했다.

업종별 인상액·인상률 격차도 특별급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서비스업 정액급은 이 기간 69만원(-1.8%), 특별급은 91만원(-19.0%) 각각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정액급이 634만원(12.0%), 특별급은 660만원(31.2%) 올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경총 1597회 금요일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난 24일 화요일이던 광주호텔에서 손관승 전 imbc 사장을 초청해 1597회 금요일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손관승 사장은 '리더를 위한 하반기 표류기'를 주제로 적자생존(기록의 중요성), 최초의 포도주와 '오미야게' 문화, 리더의 소통과 공감, 위기경영, 청어와 강소국 네덜란드의 비밀, 출구

전략과 협상력, 회복 탄력성 등에 대해 열강했다.

광주경총 금요일조찬 포럼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화요일이던 광주호텔에서 열린다. 광주경총 정회원은 무료, 일반 참가자는 당회 2만원, 연 50만원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포럼에 참여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병일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광주송정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가두캠페인을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국 캠페인

광주·전남·서울 등서 동시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4일 고병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두캠페인은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목포역과 순천역, 서울 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영업본부별로 팀을 나눠 오전 8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송정역에서 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장을 일일이 전달하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더 많은 고객 및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뜻깊은 의미를 나누고 싶어 임직원들과 함께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쳤으며 지난 20일에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응원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지자체 총 26곳에 개인적으로 500만원, 광주은행 임원들은 총 1700만 원을 기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롯데백 광주점-동부소방서 업무 협약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4일 광주 동부소방서와 롯데백화점 직장 의용소방대 지원 및 재난 대응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 등을 상호 간 공

유하고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및 재난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및 실습, 체험활동을 진행해 직장 의용소방대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진공 광주본부,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광주지역 예산은 약 12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번 모집은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올해는 수도권 중심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해 광주지역 미래차 전

환 혁신기업과 선정이력이 없는 제조 소기업에 중점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숙박쿠폰 주고 온누리 상품권 확대 해외 여행객, 국내로 발길 돌릴까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곧 발표

정부가 숙박쿠폰 지급과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등을 통해 소비·관광을 증진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른바 이번 주 중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발

표한 수출 활성화와 대책처럼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내수 대책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3년 가까운 코로나19 사태 기간 크게 침체했던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우선 폭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여행 수요가 국내에서도 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 관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기간 월간 10만명을 밀돌던 출국 해외 여행객 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다시 늘어나 지난 1월에는 180만명에 육박했다.

이처럼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의 일정 부분을 국내로 돌리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숙박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숙박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국내 숙박비 3만~4만원을 깎아주는 숙박쿠폰을 지원했는데, 이 쿠폰 사용자들은 평균 쿠폰 지원 금액의 약 11배를 여행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에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해 KTX·관광열차 운임과 렌터카, 지방공항 항공편, 시티투어 버스 등의 가격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비를 축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6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0	24	33	38	45	36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898,238,907	28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3,664,392	96
3	5개 숫자일치					912,646	4,593
4	4개 숫자일치					50,000	179,475
5	3개 숫자일치					5,000	2,566,118